

- 주요 뉴스: 미국 ‘더 나은 재건’ 법안은 수정된 형태로 표결 가능성 성장률 전망은 하향
 - 독일 중앙은행, 4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우려
 -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0.05%p 인하. 내년 추가 완화 가능성
 - 일본은행 총재,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향후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영향
 주가 하락[-1.1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오미크론 확산 등이 투자심리 저해
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.4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낮은 수준의 국채금리 지속 등이 배경
 유로화가치는 0.4% 상승, 엔화는 강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0.4원, -0.5원) 약보합, 한국 CDS 보합

		12/20일	12/17일	전일대비			12/20일	12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68.0	4,620.6	-1.1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2%	1.40%	2bp
	유럽	467.35	473.90	-1.38%		독일	-0.37%	-0.38%	1bp
	중국	3,593.6	3,632.4	-1.07%	CDS 5y	한국	21bp	21bp	0bp
	일본	27,938	28,546	-2.13%		중국	44bp	42bp	2bp
	한국	2,963.0	3,017.7	-1.81%	위험 지표	EMBI+	-	397	-
환율	달러지수	96.52	96.57	-0.05%		VIX	22.87	21.57	6.03%
	유로화	1.1279	1.1240	0.35%		WTI유	68.23	70.86	-3.71%
	엔화	113.61	113.63	0.02%	원자재	구리	429.6	429.1	0.10%
	위안화	6.3757	6.3754	0.00%		금	1,790.9	1,798.1	-0.40%
	원화	1,190.8	1,180.9	-0.8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'더 나은 재건' 법안은 수정된 형태로 표결 가능성.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

- 민주당 맨친 의원의 반대로 2조달러 규모인 '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)'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. 하지만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2022년 초에 예정대로 해당 법안의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, 관련 논의를 12/21일(화)에 갖겠다고 언급
- 맨친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일부 수정을 통해 규모를 1.75조달러로 축소하기를 원한다고 발언.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세제 및 지출 계획의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
- 다만 시장에서는 법안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. Height Capital Markets의 Benjamin Salisbury도 맨친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면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
- 골드만삭스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, 내년 1/4분기(3%→2%), 2/4분기(3.5%→3.0%), 3/4분기(3.0%→2.75%) 성장률이 모두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. Moody's Analytics의 마크 잔디도 내년 성장률이 0.5%p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독일 중앙은행, 4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우려

-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 등이 소비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. 특히 일부 서비스 섹터의 매출 부진이 예상된다고 경고. 공급 차질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진단

■ 스페인 중앙은행, 2021·22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. 공급 차질 등을 고려

- 공급 병목, 인플레이션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(6.3%→4.5%). 2022년 성장률 전망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며 조정(5.9%→5.4%)

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을 주시할 필요

- 센테노 총재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
■ 일본은행 총재,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방침

- 구로다 총재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.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0.5%로 수준으로 여전히 목표치 2%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진단

■ 중국 정부, 대형 부동산 기업이 부실 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를 촉구

- 중국증권보에 따르면,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. 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경제 불안정 심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

■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0.05%p 인하. 내년 추가 완화 가능성

-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LPR을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20개월 만에 0.05%p 인하하여 3.80%로 결정. 5년 만기 LPR은 4.65%를 유지
- 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는 2022년 1년 만기 LPR의 45bp 추가 인하를 예상. ANZ의 Xing Zhaopeng도 이번 결정은 통화당국이 경제역풍을 고려하여 금리인하에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지지한다고 평가

■ 중국 외교부장, 미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기대하지만 대립도 피하지 않을 방침

-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간 관계성은 미국 측의 전략적 판단 오류로 악화되었다고 지적. 다만 미국과의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발언

■ 대만 11월 수출 수주, 65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. 내년 전망은 불투명

- 같은 달 수출 수주는 전년동월비 13.4% 증가. 이는 공급망 문제 완화와 전자제품 수요 호조 등에 기인. 내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20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0월 경상수지(억유로): 181, 9월(176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21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, 독일 2022년 1월 Gfk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통화정책 경로, 양국 간 성장률 괴리가 완화될 전망 - 블룸버그**
(Hawkish Fed, Dovish PBOC Diverge in New Phase of Policy)
 - 연준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했지만, 인민은행은 성장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. 연준의 긴축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, 인민은행의 완화조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여 양국의 성장률이 수렴될 가능성
 - 한편 양국의 통화정책은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를 초래할 전망. 그러나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 등이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
 - Standard Chartered의 Ding Shuang은 중국이 내년 내수 부양책으로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미국은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 추세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**주요국 중앙은행 독립성, 정치적인 이유로 위험에 직면 - Financial Times**
(The dangers of politicising 'independent' central banks)
 -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90% 정도가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평가. 그러나 부채부담, 코로나 19 위기,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. 중앙은행이 정부와의 이해관계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위험
 - 미국에서는 연준이 대통령과 재무부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 전개. 영국은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자금계획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시도. 특히 고물가 제어와 재정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 요구
- **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,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- WSJ**
(Will Biden's Spending Bill Cause Stronger Inflation?)
- **내년 전세계 공급 차질, 반도체 투자 증가 등으로 완화 예상 - Financial Times**
(Could shortages give way to gluts?)
- **미국의 통화정책 선회, 실질적인 비둘기파적 결정으로 고물가 지속 가능성 - 블룸버그**
(The Fed's Pivot Is the Opposite of Hawkish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